

## 협회 상근부회장 이·취임식 거행



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·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근부회장 이·취임식을 거행했다.

이날 행사에서 백영기 전 상근부회장은 이임사에서 “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”면서 “부임할 당시 무엇인가 해보자는 각오로 업무에 임했으며,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업을 확대하고, 훈련원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”

고 말했다.

또한 “체제 및 기반이 안정돼 앞으로 전기협회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한다”면서 “새로 부임한 박천진 부회장과 열심히 노력하여 전기계를 위해서 우뚝서는 조직으로 될 것”을 당부했다.

박천진 신임 상근부회장은 취임사에서 “협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참여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”면서 “항상 부회장실은 열려 있으니 알려 줄 사항은 알려주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조직원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고, 서로간의 벽을 허물어야 하며,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

특히, “4월에 열릴 ‘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숍’과 8월에 KEPIC-Week’ 행사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줄 것”을 당부했고 “公私간에 일을 철저히 해야 겠지만 직장 분위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조성해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”고 강조했다.